

마포순환열차버스 50% 할인받고 마포에서 가을 여행하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한국관광공사,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11월 30일까지 마포순환열차버스를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포의 대표 관광지원과 골목상권을 많은 구민과 관광객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프로모션은 '카카오 T' 앱에서 진행되며, 프로모션 기간에는 성인 기준 5,500원의 종일권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2,750원으로 할인되어 하루 동안 부

담 없이 마포의 명소와 골목길을 누릴 수 있다.

'카카오 T' 앱의 '여행' 탭에서 '시티투어' 아이콘을 선택하면 마포순환열차버스 티켓을 손쉽게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어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마포의 골목골목을 느긋하게 즐기기에 최적의 기회다.

아울러 10월 28일부터는 티머니와 후불교통카드 결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돼, 그동안 정류소 키오스크나 마포상생협, 버스 내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했던 탑승권 구매가 한층 더 편리해질 예정이다.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2회 운행하며, 레드로드, 하늘공원, 망원한강공원 등 주요 관광지와 11개 상권을 하나로 연결해 관광을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을 정취 속에서 마포의 명소와 상권을 더욱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카카오 T와 협력 할인을 진행한다"라며 "마포구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목2동 200번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감사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고, 공동주택 임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구청장

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6월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를 받아 양천구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노후주거지 정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등 31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거쳐 허가를 최종 처리했다.

양천구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받은 목동우성아파트는 1992년 준공 이후 33년 만에 주거환경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

리모델링은 지하 1층~지상 15층, 총 332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18층, 361세대로 수평 증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차 공간은 지상주차 없이 214면에서 568면으로 354면이 확충되고, 건축 연면적은 약 3만 8천㎡에서 8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이장성 기자

겨울철 눈길에도 안심! 서초구, 도로열선 31개소 설치 완료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겨울철 구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도로열선 설치 사업'의 목표치를 올해 중 조기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당초 '도로열선 구간 확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내 도로열선 총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23개소에 도로열선을 설치하고 올해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2025년 10월 현재 총 31개소(총 연장 5,511m)에

설치 완료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주요 경사로와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에는 외부재원 50억 원을 포함한 약 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설치 대상지로는 ▲경사도가 높고 ▲보행자와 차량 등 통행량이 많으며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심으로 ▲제설 작업이 어렵거나 ▲상습 결빙이 발생하는 구간을 우선 선정했다. 이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로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 도로열선 중장기 설치계획을 수립해 후속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향후 3년간 총 12개소(총 연장 1,540m) 구간에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총 42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 보조금과 주민참여예산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차단 나선다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 지원으로 신속 구제

고3·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보이스피싱 대응 등 실전 중심 교육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실태 집중 모니터링 및 카카오·유튜브 등 청년 맞춤형 온라인 캠페인 전개



최근 청년층의 경제·취업난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팔을 걷었다. 특히 캄보디아 등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채무 탕감·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신종 수법이 확산함에 따라, 시는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을 단기간 집중 가동해 청년층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25.10월 기준)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이 0.4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20~30대 불법사금융 이용 비율도 '22년 7.5% → '23년 9.8% → '24년 10.0%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과 청년 대상 금융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 △청년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온라인 홍보·캠페인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상담부터 피해구제, 예방 교육까지 연계 지원해 청년층의 불법고금리, 채권추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12.31.(수)까지 운영하고 온

라인 상담 접근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 클릭 한 번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누리집(http://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청 서소문2층사 7층)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청년이 스스로 금융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은 '생활형 금융 안전'을 주제로 신용·채무관리,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법,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식을 다룬다.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집합 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수능 이후, 11월 17일~12월 19일)과 대학생 및 군인(11월~)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SNS, 구직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콜러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한다.

이장성 기자

도심~남산 잇는 무장애산책로 '남산 하늘숲길' 개통

25일(토), 남산 체력단련장~남산도서관 1.45km 무장애 데크길… 보행약자 배려

맑은 하늘 아래 남산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늘숲길이 드디어 열린다. 이번에 개통하는 '남산 하늘숲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km 구간으로 안정적 높이와 낮은 경사의 무장애길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금) 서울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정원 등 매력 포인트를 골고루 갖춘 '남산 하늘숲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데한 열풍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남산의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창한 숲을 관통해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멀리 한강과 관악산까지도 조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산림을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지속가능산림정책 모델로 산림 보전과 국유림의 공익기능 극대화가 목적이다.

아울러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제

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와 함께 '하늘숲길' 주변 하층식생 불량, 위해 덩굴식물 등으로 훼손된 구간에는 남산 자생종 수목과 지피류를 심고 기존 소나무 수림대에는 남산에서 채취한 종자로 키운 어린소나무를 추가로 식재, 남산 식생을 복원해 나간다.

이장성 기자

전담기구 통해 고립위험 가구에 사회적 연결고리 만든다

고립위험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속적 관계망 형성 위해 자조모임 등 참여 유도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의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가 고립 위기에 처해있는 2900여 가구를 발굴하고 6,600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전담기구는 물품 제공이나 복지서비스 연계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망 형성을 돕고 있어 대상자가 재고립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4월, 64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기구는 지역사회에서 고립가구를 발굴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담기구는 지역의 고립가구와 직접 접촉하거나 서울마음편의점 이용자, 주민조직 등을 통해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와 심층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어려움 등을 파악한다.

체크리스트는 ▲심리상태(외로움, 사회적 고립) ▲일상생활관리(위생, 식사, 재정, 건강, 은둔, 대인관계, 생활패턴) ▲위기상황 등 3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고립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후 고립 유형·어려움 등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전담기구는 고립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재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요리, 원예, 운동,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조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올 4월 운영을 시작한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는 9월 기준으로 고립위험에 처해있는 2937가구를 찾아냈으며 이들에게 661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취약·위기가구를 다방면으로 돕는 사례관리 발굴도 661가구에 달했다. 발굴된 가구는 일상지원군 638가구, 관계지원군 829가구, 일상위험고립군 643가구, 집중관리군 263가구, 긴급위기관 564가구였다.

